자료에 따르면 효고 북부에서 은 채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000년 전부터로 8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도 합니다. 야카타마치는 북부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를 오가는 여행자들의 역참 마을로 1800년대까지 번창했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 이 마을은 막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채굴된 은은 주로 무사의 경호를 받은 수송인에 의해 도보로 수송되었습니다. 은은 중요했기 때문에 막부의 관리들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1876년 메이지 정부는 이쿠노 광산과 히메지의 시카마항을 연결하는 도로의 근대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머캐덤공법을 채용한 ‘이쿠노 광산료 마찻길’(현재의 ‘은의 마찻길’)은 마차를 이용한 은 수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야카타마치에 9곳의 하타고(여관)가 있었습니다. 그중 2곳은 ‘고요야도’라고 불리는 정부 관리용 숙소이며, 남은 7곳은 ‘잇판야도’라고 불리는 일반인을 위한 숙소였습니다. 그 외에 술집이 6곳, 대부업체가 3곳,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상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역참 마을이었던 시절의 건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마을을 통과하는 옛길을 따라 걸어볼 수 있습니다.